

시스몽디의 動態分析에 對한 研究⁽¹⁾

崔 弘 教

자본축적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논쟁인 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의 과잉생산 불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을 살펴보았다. 세이와는 달리 시스몽디에 있어서 경제의 전형적인 상태는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수요의 부족이 도출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스몽디의 학설사상의 위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머리말

시스몽디(J.-C. Sismondi, 1773-1841)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또 사회이론가로서 19세기 유럽 지성사에 특이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시스몽디는 이론적 업적에 비하여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경제학설사 교과서에도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학에 있어서 시스몽디의 주된 논의는 주로 新經濟學原理(Nouveaux Principes d' Economie Politique, 1819)에 나타나 있는데, 시스몽디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아담 스미스 이래의 조화로운 세계관 즉, 외부간섭이 없다면 경제의 균형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하여 항상 달성된다는 세이, 리카도 등의 논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의 책의 표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이론 내지는 原理(principes smithiens)에 대항, 부정하고, 새로운 原理(nouveaux principes)를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시스몽디의 이론적 기여로서 價値論과 動態分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시스몽디의 동태분석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케네는 경제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명시하고 경제현상을 이들 부문사이의 순환으로서 관찰하는 분석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케네의 분석은 비록 그가 경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태적인 단순재생산모형이었다. 시스몽디는 이와 같은 케네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간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동태분석을 최초로 행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

(1) 본 논문은 1998년 2월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세밀한 논평을 하여 주신 김균 교수, 홍기현 교수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서 균형의 달성이 불가능함을 논의하였다. 시스몽디의 동태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장에서는 먼저 과잉생산 불가능성과 관련한 고전파의 논의를 세이의 법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의 내용을 모형을 통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시스몽디 동태분석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2. 古典派의 過剩生産 不可能性和 세이의 法則

시스몽디의 동태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과잉생산 불가능성과 관련한 고전파의 논의를 살펴보자. 고전파경제학에 있어서 과잉생산 불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세이의 법칙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는 세이의 법칙으로부터 경제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달성되고, 또한 경제의 과잉생산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라는 세이의 법칙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고전파의 조화로운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²⁾ 세이의 법칙은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바로 생산자의 수입으로 전환되고 이는 타재화의 구입으로 즉시 지출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생산물의 총가치는 배분된 수입 총액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므로 생산된 재화는 이와 동등한 구매력이 생산자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모두 구매된다. 여기서 화폐형태로 배분된 생산자의 수입은 즉시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화폐를 단지 交換의 媒介手段으로만 파악하는 화폐에 대한 정의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세이의 법칙 존립의 기초에는 화폐를 매개의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고전파의 화폐이론이 존재한다. 세이는 화폐가 단지 이로써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때문에 수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화폐의 여러 기능 중 단지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만을 인정하였다. 말하자면 화폐는 단지 일시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화폐의 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 경우 교환은 표면적으로는 화폐적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교환은 재화와 재화와의 교환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물물교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폐를 단지 매개의 수단으로

(2) 주지하는 대로 세이의 법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후 논쟁의 전개과정에서 이론의 정치화와 함께 많은 변화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에 따라 모호하고 또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제거되고 정치화 과정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세이의 법칙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세이의 법칙의 고전파에 있어서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이의 법칙과 비견되는 생각은 이미 스미스에게도 나타났고, 세이와 제임스 밀간의 독창성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세이 이전의 경제학자들의 저술에도 비록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라는 표현은 발견할 수 없지만, 세이의 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칙이 표현하고 있는 생각을 세이의 법칙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이 세이에 의해서 가장 도그마틱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Luxemboug(1972, p. 181), Sowell(1972, pp. 13-16)).

서만 정의하면 화폐경제는 단지 기술적으로 물물교환경제에 우월할 뿐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일 뿐이고, 교환은 항상 재화와 재화의 교환이다” (Say(1972, p. 139))에서 나타나듯 세이는 화폐를 교환의 단순한 매개물로만 보았고, 화폐의 다른 기능은 무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 하에서 $MV = PT$ 라는 고전파의 화폐수량식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폐에 대한 정의 하에서 화폐의 퇴장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화폐는 타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수요된다. 그러므로 화폐가 손바닥 안에 오래 머무름 이유가 없다.” (Say(1972, p. 141)) 이로부터 자동적으로 투자와 저축이 항상 같다는 등식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모든 저축은 자동적으로 투자되고, 따라서 수요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과잉생산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이의 법칙의 타당성은 화폐의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화폐퇴장의 불가능성으로부터 도출된다.⁽³⁾

전반적인 過剩生産 즉, 공황이란 엄연한 현상에 직면하여서도 세이는 재화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이는 이와 같은 현상을 생산과 수요간의 不照應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였다. 즉 세이에 있어서 공황은 경제부문간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응에서 연유된 것이고, 경제전체로 보면 수요와 공급은 정확히 대칭이 된다. 한 부문이 초과공급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부문이 일시적으로 초과수요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과수요의 합 또는 부분적 불균형의 합은 영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적 불균형은 경쟁에 의해 즉 가격변화와 자본이동으로 해소된다. 이와 같이 세이는 개별부문에 있어서 과잉과 부족이 총체적으로는 정확히 상쇄되는 부분적인 과잉생산을 인정하였다. 부분적인 과잉생산은 세이의 법칙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과잉생산 즉 공황은 세이의 법칙과는 양립 가능하지 않다. 전반적인 과잉생산을 인정하지 않는 세이에 있어서는 공황은 바로 부분적인 과잉생산을 의미한다.

세이에 있어서 공황을 의미하는 부분적 불균형의 원인을 세이는 경제외적인 요인들 즉,

(3) 세이와 리카도뿐만 아니라 맬더스와 시스몽디를 포함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축 = 투자라는 등식을 갖고 있었다. 물론 세이는 화폐의 퇴장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고, 그는 화폐의 퇴장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폐의 퇴장이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화폐는 타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화폐가 퇴장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화폐의 퇴장이 장기화되지는 않는다. 화폐는 그 자체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Say(1972, p. 138)) 화폐를 단순히 매개수단으로만 파악하는 화폐에 대한 정의 하에서는 저축과 투자는 자동적으로 일치한다. 그 결과, 논자들은 모두 화폐퇴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화폐이론상의 오류는 단지 화폐이론뿐만 아니라 가치론 및 고전파의 공황에 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의 근원이 되었다. 이 점에서 고전파의 공황이론에 대한 비판은 바로 고전파의 화폐이론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자연재해, 정치, 전쟁 등에서 찾았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간섭받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간의 부조응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장의 힘에 의해 부문간의 불균형은 즉각 해소된다고 보았다.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조정기능을 저해하며, 따라서 불필요하고 해악만 끼치게 된다. 생산된 재화는 화폐를 매개로 타재화와 항상 교환되므로, 세이의 법칙이 성립되는 한 경제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아무런 곤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수요의 전반적인 부족가능성에 대한 부정은 세이의 법칙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항상 최선을 다해 많이 생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조화로운 세계관을 세이의 법칙은 표현하고 있다.⁽⁴⁾

시스몽디는 맬더스와 동일하게 세이와 리카도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생산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스몽디는 수요의 부족, 즉 유효수요의 부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과도저축을 비난하였다. 비록 스미스는 저축을 생산증대의 조건을 형성하는 미덕이라고 칭찬하였지만, 시스몽디에게 있어서는 소비하지 않는 것 즉 저축은 수요부족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시장을 축소한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시스몽디의 논급에 잘 나타나 있다.

리카도와 세이는 경제학자는 부의 생산에만 관심을 갖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국가의 번성은 항상 보다 많이 생산을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산은 교환 수단을 창출하면서 소비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산업이 어떠한 양을 생산하든지 이것이 시장을 마비시킨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와 욕망은 항상 어떠한 재화라도 이를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맬더스와 나(시스몽디)는 소비는 결코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필요와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와 욕망은 사람들에게 교환수단이 구비되었을 때만 충족될 수 있다. …… 우리들은 생산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는 상호 독립된 원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자는 때로는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생산에 선행되지 않고 또한 생산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공급과잉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산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Sismondi(1971, pp. 343-344)].

여기서 시스몽디는 고전파의 입장, 즉 생산의 무한한 증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비부족과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시스몽디는 생산

(4) 이와 관련하여 슈페터는 세이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조화론적 세계관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Schumpeter(1967, p. 618)).

은 자동적으로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는 상호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즉 생산과 수요는 상호 독립적이며, 생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 공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스몽디는 리카도, 세이를 비판하면서 유효수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기할 점은 절대수요라는 개념의 사용이다. 시스몽디는 인간의 절대적 수준의 욕구 내지는 필요에 기초한 絕對需要개념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다. 세이뿐만 아니라 리카도 그리고 스미스 역시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는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과잉생산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 절대수요란 개념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생산의 한계는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생산은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절대적 수준의 욕구 내지는 필요와 관련하여 과잉임이 아니라 유효수요와 관련하여 과잉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의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시스몽디의 입장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3. 시스몽디의 動態分析

시스몽디는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에 대해 도덕적 분개를 넘어서서, 이를 공황현상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부의 급격한 증가와 분배상의 불평등의 증가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이 공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공황이란 현상에 대하여 표면적 내지는 피상적인 설명에만 급급하던 맬더스와는 달리 시스몽디의 큰 매력은 어떻게 수요의 부족이 자본축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가를 동태분석을 통하여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이윤의 원천에 대한 설명이다. 이하에서는 동태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논의를 살펴보자.

먼저 동태분석에서 시스몽디는 재생산과정에서 경제변수간의 相互關係의 관점에서 문제를 논의하였다. 생산의 규모가 소비의 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고 소비규모는 다시 총소득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시스몽디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국민소득은 총생산을 규제함에 틀림없다. …… 다음해의 생산규모는 지난해에 사회의 모든 계급에 돌아간 총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 따라서 국민소득과 연간생산은 상호균형을 이루고 동일량으로 나타난다. …… 총연간소득은 총연간생산과 교환

되게끔 되어 있다. …… 연간소득이 그 해의 총생산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산의 일부분은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생산자의 상점에 쌓이게 되고 그들의 자본을 마비시키며 생산은 정지하게 된다[Sismondi(1971, p. 129)].

여기서 시스몽디는 경제변수간의 動學的인 連鎖過程을 명백히 논의하고 있다. 즉, “국부는 순환운동을 지속한다. 모든 결과는 다음 과정에서는 원인이 되고, 각 단계는 다음단계를 규정한다.”(Sismondi(1971, p. 130)) 말하자면 국부의 전개과정을 순환적인 연쇄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스몽디는 여기서 소득의 발생과 지출 사이에 존재하는 時差를 명백히 도입하였다. 시스몽디의 독창성은 소득의 발생과 지출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도입하여 최초로 경기순환 또는 변동과 관련하여 동태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⁵⁾

이와 같이 시스몽디는 기본적으로 재생산의 관점을 가지고 즉 생산, 소비, 소득간의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논의를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스몽디는 세 가지 점에서 리카도 등을 비판하였다. 첫 번째는 과거의 소득을 미래의 소득과 혼동했다는 점이다. 전기의 소득이 금기의 생산을 구매해야 하는데, 전기의 소득은 이미 사전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금기의 생산은 아직 미결정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시차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두 번째는 생산물의 실현문제의 간과 내지는 소비와 수요 측면의 경시에 대한 비판이다. 즉, 리카도 등은 생산은 자동적으로 소득의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 생산물은 구매되어야 즉 실현된 연후에야 비로소 소득이 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이들이 생산과 소비간의 자동조정의 환상을 갖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具體的인 時間(temps concret)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생산은 수요를 창출하지만, 그러나 순환의 끝에서 수요가 창출되는데, 순환과정에 존재하는 각종 장애를 사상했다는 점이다(Sismondi(1971, pp. 129-35)).

또한 시스몽디는 과잉생산의 필연성 내지는 자본축적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금년의 생산물은 전년보다 보다 많게 된다. 그런데 지출된 소득

(5) 리카도의 정상상태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리카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자본규모에 대응하는 정상상태에 대한 비교분석만 존재할 뿐이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 동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리카도의 분석은 비교정태분석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슈페터에 따르면, 비록 리카도를 비롯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동태적 분석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지만, 시스몽디는 최초로 또 명시적으로 동태분석을 행하였다고 격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도구상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chumpeter(1967, pp. 494-497)). 케인즈의 승수는 소득과 소득의 지출 사이에 시차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하다. 오늘날에는 진부한 이와 같은 생각이 한 세기 전에는 무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 바로 전해의 생산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기에 있어서 소득은 항상 구매되어야 할 산출물보다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총수요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즉, t 기의 소득은 $t + 1$ 기의 수요를 형성한다($Y_t = D_{t+1}$).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산출량은 그 전기보다 크다($Q_{t+1} > Q_t$). 그러므로 생산과 수요 사이의 괴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Q_{t+1} > D_{t+1}$, $Y_t = Q_t$). 전기의 소득으로 금기의 산출물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생산의 확대는 경제에 파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시스몽디는 경제가 성장할 경우 어떻게 과잉생산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단순재생산을 가정한다면, 자본축적 문제는 풀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스몽디의 이론은 자본축적의 부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스몽디는 자본축적의 객관적인 불가능성을 이와 같이 논증하고 있다. 그의 논리의 기초에는 생산과 수요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시스몽디는 생산력의 무제한적인 증대와 생산의 증대를 주장하는 고전파와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고, 시스몽디의 논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축적에 대한 경고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과잉생산의 필연성을 논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스몽디는 점진적인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확대재생산의 경우 지난해의 생산물로 올해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생산의 증가가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면 매년의 교환은 작은 損失(petite perte)만을 초래하며 이는 장래의 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손실이 작고 잘 배분된다면 사람들은 이를 불평 없이 감내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그마한 희생은 자본과 공공의 부를 증가시키게 된다. 만약 축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판매되지 않은 재화가 누적되며 이는 재앙 즉 공황을 발생시킨다(Sismondi(1971, p. 129)).

즉 시스몽디는 자본축적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보고 교란이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시스몽디에 있어서 경제의 발전 내지는 성장은 저축,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떠한 때 이와 같은 점진적 축적이 가능할 것인가. 시스몽디에 있어서 경제는 항상 공급에 대하여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균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경제내의 노동을 다 고용할 경우, 경제는 비록 전통적인 의미에서 균형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경제는 큰 곤란을 경험하지 않고 순조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시스몽디의 논의를 고정자본이 없는 즉 유동자본만이 존재하는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성장률이 0인 즉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시스몽디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⁶⁾

유동자본만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의 총량(W)은 바로 자본량(K)과 같다.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은 전부 지출된다고 가정한다. 자본가가 취득하는 이윤(p)은 자본량과 이윤율(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득은 사치재에 대한 소비지출(C)과 저축(S)으로 처분된다. 그리고 저축은 바로 투자(I)된다고 가정한다. 고정자본이 없는 단순모형에서 축적은 임금총액의 증가형태로 이루어진다. $X_1, X_2, W_1, W_2, p_1, p_2, C_1, C_2$ 는 각기 임금재를 생산하는 1부문과 사치재를 생산하는 2부문의 산출량, 임금소득, 이윤 그리고 소비를 나타낸다.

성장률이 0인 경우 즉 동일한 규모로 재생산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X_1 &= W_1 + p_1 & p_1 &= W_1 \\ X_2 &= W_2 + p_2 & p_2 &= W_2 \\ X_i &= (1 + \pi)W_i & W_i &= 1/(1 + \pi)X_i \end{aligned}$$

여기서 $v = \pi/(1 + \pi)$ 라고 하면 v 는 산출량 중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몫을 나타낸다. W_1 은 $W_1 = (1 - v)X_1$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윤율 π 는 경쟁에 의하여 양부문에서 동일하다. 여기서 π 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v 역시 고정되어 있다. 양부문에서 산출량과 수요가 일치할 때 경제는 균형상태에 놓이게 된다.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C_1 &= W = X_1 \quad (W = W_1 + W_2) \\ C_2 &= p = X_2 \quad (p = p_1 + p_2) \end{aligned}$$

이제 성장하는 경제를 살펴보자.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생산은 항상 수요를 초과한다. 부문 1의 산출물(X_{1t})에 대한 수요는 전기의 노동자의 소득(W_{t-1})으로부터 나오고, 부문 2의 산출물(X_{2t})에 대한 수요는 전기의 자본가의 소득 중 소비 지출되는 부분으로 구성

(6) 이 모형은 Parquez(1976, pp. 1168-1200)의 모형을 변형시킨 것이다.

된다. 생산의 증가율을 g 라고 할 때 1부분과 2부분의 산출량과 수요의 격차 즉 손실(P_{1t} , P_{2t})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_{1t} = X_{1t} - W_{t-1} = (1 - v)X_t - (1 - v)X_{t-1} = (1 - v)(X_t - X_{t-1}) = g(1 - v)X_{t-1}$$

$$P_{2t} = X_{2t} - (1 - s)p_{t-1} = vX_t - (1 - s)vX_{t-1} = (1 + g)vX_{t-1} - (1 - s)vX_{t-1}$$

$$= (g + s)vX_{t-1}$$

그리고 양부문에서의 손실의 합은 $P_t = P_{1t} + P_{2t} = (g + sv)X_{t-1}$ 이다. 여기서 1부분과 2부분의 수요와 산출량의 격차는 g , v , s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생산의 증가율 g 가 클수록 수요와 산출량의 격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⁷⁾

이제 시스몽디의 작은 손실과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여, 경제에 주어진 노동을 다 고용하는 성장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생산이 수요보다 항상 큰 경제에서 주어진 노동을 다 고용하기 위하여서는 주어진 노동의 고용의 축소를 의미하는 1부분의 손실보다 저축(S)이 많아야 한다. 즉 저축과 자본손실의 차인 투자가 양이어서 주어진 노동 또는 증가한 노동 인구를 다 고용하여야 한다.

유동자본에 대한 t 기의 투자는 $t - 1$ 기에 이루어진 저축에서 $t - 1$ 기의 1부분에서 발생한 손실($g(1 - v)X_{t-2}$)을 감한 것이 된다. $t - 2$ 기의 생산은 모두 실현되었다고 가정하면, $t - 1$ 기에 있어서 2부분의 생산은 vX_{t-1} 이고 2부분에 대한 수요는 $t - 2$ 기에 생성된 이윤(vX_{t-2}) 중 소비지출된 부분($(1 - s)vX_{t-2}$)이다. 그러므로 $t - 1$ 기의 실현된 이윤은 $(1 - s)vX_{t-2}$ 이며, 2부분의 손실은 $vX_{t-1} - (1 - s)vX_{t-2} = (g + s)vX_{t-2}$ 이다. 따라서 $t - 1$ 기에 실현된 이윤중 $s(1 - s)vX_{t-2}$ 만큼이 저축되고 $(1 - s)(1 - s)vX_{t-2}$ 만큼 차기에 소비지출된다. 이제 노동인구증가율을 n 이라고 하면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I_{1t} = S_{t-1} - P_{1t-1} = s(1 - s)vX_{t-2} - g(1 - v)X_{t-2} > n(1 - v)X_{t-2}$$

따라서, $s(1 - s)v/(1 - v) > (n + g)$ 일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⁸⁾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의 증가율(g)과 노동인구증가율(n)의 합이 s 와 v 에

(7) 시스몽디는 동태적 진행과정을 논의하면서 암묵적으로 임금 後拂을 가정하고 있다.

(8) $s(1 - s)vX_{t-2} - (1 - v)gX_{t-2} > n(1 - v)X_{t-2}$,

$s(1 - s)v - (1 - v)g > n(1 - v)$,

$s(1 - s)v > (1 - v)(n + g)$. 여기서 $0 < s, v < 1$ 이며, 따라서 $s(1 - s)v/(1 - v) > 0$ 이다.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 $s(1-s)v/(1-v)$ 보다 작아야만 경제는 큰 곤란을 격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윗 식으로부터 산출량중 이윤이 차지하는 몫을 나타내는 v 가 증가하면 $s(1-s)v/(1-v)$ 가 증가하며, 자본의 손실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⁹⁾ 저축률 s 가 낮은 수준일 때 s 가 증가하면 균형성장을 허용하는 성장률의 한계 $s(1-s)v/(1-v)$ 가 증가하지만, s 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증가하면 $s(1-s)v/(1-v)$ 는 감소한다.⁽¹⁰⁾

여기서 시스몽디에 있어서 저축이 축적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자. 먼저 자본 축적에 따라 생산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저축은 경제성장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축적에 따른 생산의 증가는 수요부족 내지는 공급과잉을 야기하고, 이는 가격의 하락과 자본가의 소득감소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득감소는 자본가의 소비지출의 감소와 함께 차기의 고용을 축소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비지출감소와 고용축소를 발생시키는 누적적인 연쇄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축적과정에서의 누적적인 연쇄효과는 투자를 음의 수준까지 감소시켜 생산과 고용의 축소를 결과한다. 시스몽디는 임금재와 사치재 부문으로 나누어 이와 같은 누적적인 연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시스몽디에 있어서 저축은 축적과정에서 이중의 역할을 갖고 있다. 즉, 저축은 성장의 한 요소로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생산과 고용을 감축하는 누적적 과정을 나타나게 한다(Sismondi (1971, pp. 127-130)). v 가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고 저축률 s 도 증가한다. 그러나 s 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증가하면, 자본축적이 증대되고 저축의 이중적 역할에 따른 누적적 연쇄과정이 진행되어 성장률의 한계 $s(1-s)v/(1-v)$ 가 감소한다. 말하자면, “금기와 전기의 생산의 괴리가 클 경우, 자본손실이 발생하고 경제는 진보가 아니라 후퇴를 경험하게 된다” (Sismondi(1971, p. 129)).

자본가는 항상 생산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 축적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자본축적은 생산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률의 증대는 성장의 한계를 초과하여 누적적 연쇄과정을 촉발시켜 주어진 노동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생산의 증가가 s 와 v 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앞에서 소개한 누적적인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점진적인 축적을 위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내에 이와 같은 조건이 보장되는 아무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어진 s , v , n 아래에서 균형이 이루어

(9) $s(1-s)v/(1-v) = s(1-s)/\{(1/v) - 1\}$

(10) $s(1-s)$ 의 그래프는 U자를 뒤집은 형태를 취한다.

진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균형은 경제내에 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한 곧 파괴된다. 시스몽디는 동태분석을 통하여 자본축적의 불가능성 내지는 과잉생산의 필연성을 도출하면서, 또한 점진적인 축적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¹¹⁾

여기서 고전파에 있어서 資本蓄積의 歸結點을 살펴보자. 자본의 축적 내지는 고정자본의 축적은 스미스에 있어서는 자본의 과다에 따른 자본간의 경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귀결한다. 리카도 경우에는 그의 정상상태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축적은 이윤율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마르크스에 있어서 고정자본의 축적은 이윤율저하법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축적이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이윤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데 반하여 시스몽디의 경우 자본의 과다는 불균형의 확대 내지는 불균형의 지속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점에서 시스몽디의 분석은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잉생산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로 시스몽디는 노동자들의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중의 필수품에 대한 제한이 수요부족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분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스몽디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효과 내지는 문제점을 농업과 공업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숫자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생산성 증가가 공업에서 발생할 경우 농업의 경우보다 불균형은 더욱 심화 증폭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ismondi(1971, pp. 347-55)). 이로부터 그는 기술진보가 실업과 경기변동의 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생산은 증대하나, 수요부족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고 이윤도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생산과 소득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 말하자면 생산성 증대의 결과 한편에서는 과잉생산에 따른 팔리지 않는 재화가 쌓이고, 다른 한편에는 실업과 궁핍, 빈곤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한 원초적인 사고의 일단이 존재함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점에서 시스몽디는 기술진보에 따른 실업을 강조하였고, 기계도입에 대한 리카도의 초기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¹²⁾ 시스몽

(11) 고정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단순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Parquez(1976, pp. 1184-1191)).

(12) 시스몽디의 비판에 대하여 리카도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기계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신의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다(Ricardo(1970, pp. 386-395), Sismondi(1971, pp. 344-345)). 그리고 시스몽디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세이에 의하여 사회진보의 적으로 비난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자신은 사회진보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조직 또는 이의 운용에 반대한

디는 이와 같이 과잉생산 또는 불균형의 발생을 설명하고 경제학의 근본 문제는 生産과 需要간의 均衡임을 강조하고 있다(Sismondi(1971, p. 359)).

시스몽디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으로 기술진보와 부의 무절제한 증가, 분배구조에 따른 대중의 소득하락과 구매력 저하 이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공황은 시스몽디에게는 리카도처럼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의 직접적인 표현이었고, 그는 또한 정기적이고 대규모적인 공황의 도래를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잉생산을 논의하면서 시스몽디는 노동자의 소비수요 하락과 고정자본의 생산증대가 병존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시스몽디가 고정자본에 대한 지출을 무시함으로써 수요를 노동자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 축소했던 데에 기인한다.

과잉생산에 대하여 맬더스는 비생산적 계급의 지출증대와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생산 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¹³⁾ 반면에 시스몽디는 자신의 동태분석에 입각하여 자본축적의 완화, 기술진보의 억제 내지는 둔화 등과 함께 국민생활의 보호자 내지는 약자의 보호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과도한 경쟁의 규제, 상속법 개혁, 자본가연합보호법 철폐, 노동자의 생계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한 分配構造 개선을 주장하였다(Sismondi(1971, p. 365)). 여기서 우리는 사유재산제와 시장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개선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스몽디가 개량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태모형에서 발견되는 시스몽디의 논리와 함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시스몽디가

것이며, 노동자의 박탈 그리고 계급간의 갈등 내지는 적대감을 비난 고발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Sismondi(1971, pp. 355-356)).

- (13) 맬더스에 있어서 유효수요의 부족과 이에 대한 대책은 맬더스의 이윤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맬더스에 있어서 이윤은 상품의 판매가와 그 상품의 실질가치의 차액으로 나타난다. 즉 이윤은 재화를 팔 때 덧붙여지는 부가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이윤은 재화의 가치에 부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바로 재화가 구매될 때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재화를 판매할 때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재화를 팔 때 손실을 본다든 이야기다. 즉 구매자일 경우 손실을 보고 판매자일 경우 이익을 얻는다. 개별자본가의 경우 상품의 구매와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본가 전체로서는 이와 같은 부가물을 통하여 이윤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상주의적인 이윤론에서는 자본가 전체로서는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될 수 없는 구매자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부터 맬더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외부에 존재하는 제3의 범주의 소비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판매는 안하고, 구매만 하는 비생산적 계급의 존재가 맬더스에게는 필요하게 된다. 맬더스가 유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비생산적 계급의 수요를 강조하고, 또한 산출물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권고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모순된 이윤론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Marx(1976, vol.3, pp. 16-30), Sismondi(1971, p. 359)).

1824년의 소논문에서 논의한 세 가지 형태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이다. 소논문에서 시스몽디는 고대사회의 이름을 붙인 세 가지 모형(Egypte, Sybaris, Athènes)을 경제의 균형 달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¹⁴⁾ 첫 번째 경제(Egypte)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나 모든 잉여 생산물이 공공 또는 종교적 기념물의 축조에 사용하는 경제이고, 두 번째 경제(Sybaris)는 부의 편재와 함께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이루어지고 잉여 생산물이 귀족계급의 사치적 소비에 충당되는 경제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제(Athènes)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환되며,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구성원의 고결한 품성의 함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이다. 시스몽디는 바로 이 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균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본축적의 과다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과 수요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점진적인 축적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스몽디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는 기술진보, 노동시간, 임금 등 삼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스몽디의 사고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고, 시스몽디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Sismondi(1971, pp. 360-64)].

4. 시스몽디 動態分析의 問題點과 評價

시스몽디와 맬더스는 산업공황이라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경제학자이다. 그리고 유효수요의 부족이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과잉생산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세이의 법칙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세이의 법칙이 성립되는 기초인 貨幣에 대한 定義 즉 화폐를 단순히 매개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고전파의 화폐에 대한 정의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이의 법칙은 생산과 소득의 가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이 경우 화폐 퇴장의 존재는 바로 수요부족에 따른 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만약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간직한다면, 화폐퇴장은 나타나지 않고, 생산과 소득, 그리고 투자와 저축간의 일치는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화폐가 단지 매개의 수단

(14) 시스몽디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세 가지 경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고대사회의 이름을 차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으로서만 기능하는 경제에 있어서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세이의 법칙은 화폐에 대한 특별한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세이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파의 화폐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투자와 저축의 일치를 논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스몽디와 맬더스는 리카도와 세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화폐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개인의 행동양태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와 저축이 일치한다는 등식을 가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세이의 법칙에 대한 비판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시스몽디와 맬더스는 실현문제를 원초적인 과소소비설 틀내에서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소소비설의 입장에서 이들은 비생산적 계급의 소비, 소득분배의 개혁을 통한 소비수요의 증대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즉 필요한 소비를 경제 외부에서 찾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시스몽디의 동태분석과 관련하여 固定資本의 存在를 간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스미스의 도그마’의 수용과 직접 관련이 된다. 여타 고전파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시스몽디 역시 스미스의 도그마를 그대로 받아들여 생산물의 가치와 소득의 가치를 혼동하였다.⁽¹⁵⁾ 시스몽디는 연간수입은 임금과 이윤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연간 총수입을 연간 총생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지난해의 수입이 금년의 생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시스몽디는 고정자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시스몽디는 총생산물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비수단으로만 구성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을 사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스미스의 도그마를 발견할 수 있다. 연간생산물의 가치는 소득 즉 임금, 이윤, 지대뿐만 아니라 고정자본의 소모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간 총생산물은 연간 총소득보다 크다. 시스몽디는 소비된 고정자본을 복구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5) 스미스 또는 케네 이래로 고전파 경제학은 자본을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개별자본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을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구분하였지만, 경제 전체를 분석할 때에는 고정자본을 사상하고 자본은 유동자본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후자는 종종 임금과 동일시되었다. 즉 유동자본은 임금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전파에 있어서 자본축적은 임금 총량의 증가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축적, 생산적 소비 등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은 오류는 고정자본의 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임금, 지대, 이윤으로 분해된다는 스미스의 생각 즉 스미스의 價値分解論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개별 자본은 임금과 고정자본의 가치로 분해되지만, 이와 같은 분해과정을 계속해 나가면 개별자본의 합인 사회의 총자본의 가치는 임금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총자본은 임금 즉 유동자본으로만 구성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스미스의 도그마, 즉 고정자본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스미스의 가치분해론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시스몽디는 맬더스와 마찬가지로 고정자본의 생산과 순환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고, 자본의 재생산이론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 이 점 역시 시스몽디가 고전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스몽디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가 연간생산물의 수요를 충당하며, 순생산물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추가적인 노동의 고용에 전적으로 충당된다는 고전파의 명제를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였다. 스미스의 도그마에 대해 시스몽디뿐만 아니라 리카도를 포함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미스의 도그마는 화폐를 매개의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화폐이론과 마찬가지로 시스몽디에 한정된 이론적인 약점만은 아니다. 스미스의 도그마는 자본축적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논쟁이 기초했던 공통의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Luxemburg(1972, p. 160)). 또한 시스몽디의 분석은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는 케네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따라서 그의 분석은 연간 한 번의 資本先貸를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순환에 집중되고 있다. 시스몽디는 한 순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확대재생산의 조건을 제시하고 확대재생산의 불가능성을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Dumenil(1977, pp. 142-143)).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의 학설사적 위치를 살펴보자. 케네의 經濟表는 비록 단순한 모형이지만 생산, 분배, 소비의 전과정을 단일화하여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의 주기적 반복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경제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케네의 경제표는 비생산적인 계급의 지출 즉 소득의 지출로부터 출발한다. 전기말의 지대로 구성된 소득은 전기 생산활동의 결과이고, 금기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연유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케네에게 역시 소득의 창출과 소득의 지출 사이에 시차 내지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케네에 있어서 시차의 존재는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이는 케네의 경제표가 단순재생산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것은 경제표 말미에서 케네는 농산물 가격인상과 간접세의 효과를 논의하면서 산출된 순생산물의 크기 또는 투자된 자본양의 크기에 따라 산출물의 규모가 확대 또는 감소되는 확대재생산과 축소재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네가 비록 경제성장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지만, 경제표에서는 성장하는 경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소득의 창출과 소득의 지출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도입한다면, 여기서부터 경제의 과잉생산과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이 도출 가능하게 된다. 말하자면 시스몽디류의

동태분석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스몽디는 마르크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가 사용한 주요한 개념들에서 시스몽디의 영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再生産表式 분석과 價値論과 관련한 기여일 것이다.⁽¹⁶⁾ 먼저 시스몽디는 케네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순환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를 자본가, 지주, 노동자 세 계급이 아니라, 최초로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역시 이윤과 임금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점에서 시스몽디는 다른 고전파 경제학자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비록 그의 재생산 표식에서 동태적 요소를 제거하였고 생산물의 실현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점은 재생산 표식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시스몽디에 있어서 이윤은 지주의 수입인 지대와 자본가의 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대는 이윤으로부터의 추출로 파악하고 있다. “이윤이란 이름 하에 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입과 자본가의 이득이 포함된다. …… 지대는 자본의 이윤으로부터 추출된다.” 또한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고 다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의 이득은 그가 고용한 노동자를 속임으로서 얻어진다. 그의 이득은 비용에 비하여 보다 많이 생산을 하여서가 아니라,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 그리고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서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노동자에게 남기고 그 이상의 것을 다 가져간다. 한편 노동자는 그가 생산한 것 중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몽디가 착취개념 및 노동력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의 생산물과 노동능력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노동 사이의 격차를 ‘mieux-value’라고 하였는데, 이 점에서 그는 잉여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ismondi(1971, pp. 22-24, pp. 110-20)). 바로 이와 같은 점들에서 시스몽디는 마르크스에게 결정적인 이론적 영향을 주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뤼벨(M. Rubel)은 시스몽디가 마르크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계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시스몽디는 케네, 리카도와 마르크스를 잇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16) 시스몽디로부터의 이론적인 영향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몽디에 대한 논의는 기이하게도 잉여가치학설사에서도 단편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시스몽디를 소부르주아 경제학의 대표자(socialisme petit-bourgeois)로 지칭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몽디는 리카도만큼 중요하다”, “리카도와 시스몽디에 의해 고전파 이론은 완성되었다”, 또는 “리카도의 분석은 자주 모순에 차있지만 시스몽디는 명료하다”는 등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다.

5. 맺는 말

19세기초에 이루어진 경제의 과잉생산 불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이와 관련하여 시스몽디의 동태분석을 살펴보았다. 세이와는 달리, 시스몽디에 있어서 경제의 전형적인 상태는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다. 시스몽디는 동태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수요의 부족이 자본축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시스몽디는 동태분석을 통하여 자본축적의 불가능성 내지는 과잉생산의 필연성을 논의하면서, 또한 점진적인 축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세이의 법칙에 입각하였던 리카도에 있어서 경제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달성되고, 따라서 공황 내지는 과잉생산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리카도는 1816년의 최초의 산업공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의 귀결임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에 시스몽디는 자본주의의 모순된 성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순생산물 내지는 잉여가치의 실현문제는 많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괴롭힌 문제였다. 그러나 생산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명제를 갖고 있는 한 또는 경제를 물물교환경제 내지는 단순상품생산경제로 보는 한 실현문제는 경제 각 부문간의 비례문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이류의 분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시스몽디는 축적의 불가능성을 논증하려 하였고, 리카도 등은 무제한적인 축적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의 도그마에 대해 양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미스의 도그마는 화폐를 매개의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고전파의 화폐이론과 함께 자본축적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논쟁이 기초했던 공통의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

고전파의 화폐이론과 스미스의 도그마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고전파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파의 이론적 기반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몽디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시스몽디는 실현문제를 과소소비론의 틀 내에서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소소비론의 입장에 선 시스몽디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맬더스가 비생산계급의 소비증대에서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필요한 수요를 경제 외부에서 찾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시스몽디는 자본주의 이외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

어서 다른 형태의 사회를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외에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리카도를 포함한 고전파의 공통된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자본축적과 관련한 최초의 논쟁에서 공황이론과 관련하여 주요한 개념들과 이론 구성은 대부분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호하고 또 어렵듯이 감지되고 있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이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草堂大學校 流通學科 助教授
534-800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
전화: (0636)450-1544
팩시: (0636)450-1515

參 考 文 獻

- Dumenil, G.(1977): *Marx et Keynes; face la crise*, Economica.
- Emmanuel, A.(1974): *Le Profit et les Crises*, Maspéro.
- Kuczynski, M., and R. Meek(1972): *Quesnay's Tableau Economique*, MacMillan.
- Lutfalla, M.(1981): *Aux Origines de la Pensée Economique*, Economica.
- Luxemburg, R.(1972): *L'Accumulation du Capital*, Maspéro.
- Malthus, T.(1969): *Principes d'Economie Politique*, Calmann-Levy.
- Marx, K.(1973): *Le Capital*, Editions Sociale.
- _____ (1976): *Théories sur la Plus-value*, Editions Sociale.
- Parquez, A.(1976): "Un Essai de Théorie Générale de la Croissance: Les Modèles Sismondiens d'Accumulation," *Economie et Société*, **10**, 6, 1168-1200.
- Quesnay, F.(1972): *Tableau Économique*, UPG; 심상필 역 (1990), 『경제표』, 비봉출판사.
- Ricardo, D.(1970):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dolsky, R.(1976): *La Génese du 'Capital' chez K. Marx*, Maspéro.
- Rosier, B.(1975): *Croissance et Crise Capitaliste*, PUF.
- Say, J.-B.(1972): *Traité d'Economie Politique*, Calmann-Levy.
- Schumpeter, J.(1967):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e Allen & Unwin.
- Sismondi, J.-C.(1971):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livres I-IV), Calmann-

Levy.

_____ (1976):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livres V-VII), Economies et Sociétés.

Sowell, T.(1972): *Say's Law: An Historic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